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배상률 부연구위원
전화: (044) 415 - 2220
팩스: (044) 415 - 2369
drbai@nypi.re.kr www.nypi.re.kr

감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15

사례연구

ERIC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기여로 이뤄진 사례연구는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렵고 경쟁적인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장 사례연구는 다양한 국제적 상황과 여러 다른 연구 패러다임을 모두 반영하며, 아동 연구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키고 윤리적 관행을 개선하도록 구성했다.

윤리적 문제:

우간다에서는 4명의 아동 대표(남 2, 여 2)가 스타트업 워크숍에 참여했다. 우간다에서 성인-아동 연구단과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 겪은 윤리적 문제는 어떠한 아동이 해당 구성의 일원이 되고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것인지에서부터 발생했다. 국가 소속 연구자들(성인)이 참석한 Peace Club 회의에서 아동들은 지난 워크숍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다음 워크숍에도 참석하는지 물었다. 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은 “만약 똑같은 멤버가 계속해서 워크숍에 참석한다면 우리가 이 클럽의 구성원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성의 문제는 주제별 평가 과정에 참여한 거의 모든 클럽과 단체에서 발생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포용과 대표성 그리고 참여에 관한 사안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문을 얻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욱 폭넓은 의견 공유와 토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 가상 관심대상 그룹 모임에서도 이 윤리적 문제를 다뤘다. 해당 모임은 세이브더칠드런 노르웨이의 자문위원, 글로벌 연구자, 대표 연구자, 각 참가국의 세이브더칠드런 포컬 포인트를 불러모아 월례 화상회의를 통해 윤리적 관례를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했다.

선택방법:

우간다 내의 여러 Peace Club 및 아동 단체와 자문회의를 거쳐, 보다 많은 숫자의 남녀 아동들이 연구와 평가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설문조사 워크숍에 다양한 아동 및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에 동의했다. 포용적 참여와 대표성에 대한 결정은 모든 클럽 및 단체들과 공유됐다. 이후부터 순환적인 대표 시스템이 마련돼 주제별 평가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아동과 청소년을 선발하는 기준이 됐다.

어떻게 이러한 시스템이 잘 진행될 수 있었는가:

- 민주 선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 아동 및 청소년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아동은 모든 활동에 있어 집단을 대표한다.
-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참여: 아동 및 청소년은 모든 참여 과정이 포용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모든 연령대, 민족·부족적 배경, 역량(장애를 가진 아동 포함), 교육 수준에서 동등한 숫자의 남녀 아동을 선발한다.
- 또래 집단 내의 공유와 학습: 선출된 아동 및 청소년은 클럽이나 단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다른 동료들과 공유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순환적인 대표 시스템을 통해 우간다 북부에서 시행된 참여 연구와 평가 과정에 603명(여 225, 남 378)의 아동 및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은 10-14세였으며, 일부는 10대 후반이거나 20세 정도였다. 참가자들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남녀 학생, 장애 아동, 과거 유괴당했던 어린이, 미혼모, 고아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 많은 아동은 난민 캠프에서 생활했다. 해당 아동과 청소년은 “워크숍이나 트레이닝에 참석한 아동들은 다른 아동에게 그곳에서 배운 지식을 공유하고 소개했다”고 보고했다(Save the Children Norway and Save the children in Uganda, 2008).

하지만 자문 위원회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Peace Club과 단체 구성원들은 아동과 청소년 대표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결국 적은 수의 학생만을 선출하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 24명(여 12, 남 12)을 뽑아 6명의 성인(연구자, 보건교사 및 후원자 대표, 조력자, 지역 NGO와 세이브더칠드런 대표, 지역 당국의 담당자)과 함께 자문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자문 위원회는 석 달에 한 번 회의를 열어 안건을 발의 및 논의하고 분석했으며, Peace Club과 아동 단체에 참여 연구와 평가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참여 연구 과정에 있어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의 (특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포용적이고 순환적인 대표 체계를 촉진하고, 적은 수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기 보다는 많은 수의 청소년이 연구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대표 선출에 있어 아동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동료들과 공유하도록 장려할 방법은 무엇인가?
- 아동과 청소년 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 정보의 투명성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참고문헌

Save the Children Norway and Save the Children in Uganda (2008). National Report – Uganda – Children’s participation in armed conflict, post conflict and peace building.

자료제공: Clare Feinstein and Claire O’Kane. This is a more detailed version of a case example that was included in Save the Children Norway (2008) Ethical Guidelines for ethical, meaningful and inclusive children’s participation in participation practice. We also extend appreciation to Dr. Kato Nkimba for his contributions in developing this case example from Uganda.

사례연구 6: 폭력에 관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아동 인터뷰: 아동 폭력에 관한 조사 도구와 과정이 13-17세 아동을 보호하는 데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는가?

연구배경:

많은 나라에서 아동의 정서적·신체적·성폭력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전국의 가정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의 철저한 지휘 감시 하에 이뤄지고 있는데, 본 설문조사는 Together for Girls라는 국제적 민간합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질병예방센터와 UNICEF는 이러한 연구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적·물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 전 세계적으로 8개 국가에서 계획 또는 완료된 이 조사는 학대의 장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요 정보와 실태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높은 비율의 아동 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와 연계해 아동 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향상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윤리적 문제:

2006년 유엔사무총장이 발간한 아동 폭력에 관한 월드 리포트는 아동 폭력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나라에 강력하게 '전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연구 노력을 발전시키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VACS(Violence against Children Surveys; 아동 폭력 설문조사)는 전국의 평균적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13-24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경험을 묻는 조사를 시행했다. 13-17세 아동을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르고 가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이 연구의 지지자들은 13-17세 아동을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이 폭력 경험을 한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해당 기억에 대한 왜곡현상이 많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험한 어린 아동의 이야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빠른 사회 변화 역시 해당 연령대 전반에 걸쳐 아동의 폭력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교육, 정책 개혁, 커뮤니케이션 기술, 소셜미디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을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하고 효과적인 전략들이 있으며, 아동이 조사로부터 받는 혜택이 잠재적 피해보다 훨씬 많다고 여겼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13-17세 아동을 인터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아동 참가자들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원이나 보호를 제공할 전문 인력 및 보호 시스템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몇몇 질문들은 13-17세 아동에게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선택방법:

- 설문 과정에서 아동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 응답자를 확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관리인의 보복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목적은 마을이나 가정의 대표에게만 공개됐다;
 - 일방적·개인적 판단을 배제하는 인터뷰 분위기가 형성됐다;
 - 인터뷰 진행자는 아동 참가자와 동성인 자로 선발됐다;
 - 남녀 응답자들은 혹시나 같은 지역 공동체 내의 가해자일 수 있는 응답자와 동석해 조사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인터뷰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의 기밀 유지를 위해 인터뷰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모든 응답자에게 연락 가능한 기관 서비스 목록을 제공했다;

- 도움을 원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쾌감을 겪는 응답자들을 위해 관련 서비스 기관이나 상담 전문가를 연계해 주는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동의 절차를 시행했다;
- 응답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답변을 거부하거나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었다.

- 설문조사 시행 전 문화기술적 연구가 진행됐다. 이는 연구 조사 내용이 문화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다루는 사안들이 전 연령대에 걸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 응답자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나 유효한지 알아보고자 즉, 응답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조사 방법에 대한 인지 검사가 이뤄졌다. 인지 검사에서는 각 질문이 가지는 과학적 의도를 잘 담고 있는지, 동시에 응답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응답자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인터뷰 시행 전에 수정됐고, 이는 전반적인 연구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켰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폭력을 다루는 설문조사에서 아동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단계들을 밟아야 하는가?
- 폭력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아동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은 무엇인가?
- 설문이 해당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성에 대한 첫 경험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고 있는가?
- 어린 아동들을 연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18-24세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폭력 경험과 체험 및 겪은 상황들에 대한 정보와 결과에 의존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연령대(5, 10, 15년 사이)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의 가치는 무엇인가?
- 어린 아동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연구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대책이 없을 경우 겪는 위험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아동의 견해를 묻는 것을 제한하거나 지금보다 덜 정확한 견해를 연구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정신적·육체적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닌가?
- 아동과 윤리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있을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적합한 아동의 연령대를 다루는 논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자료제공: Mary Catherine Maternowska, UNICEF Office of Research at Innocenti.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쇄처 아르빛

사전 승인 없이 본 간행물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44) 415-21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정보관)